



한라일보 등 언론 4사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양상현 KCTV제주방송 보도부장, 위성곤 당선인, 김한규 당선인, 문대림 당선인. 이상국기자

## “제주도민 목소리 정책 반영에 주력”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국회의원 당선인 특별 대담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도민 이익 최우선에 방점  
추가 배송비·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완화 등 주력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뽑힌 제주지역 당선인 3명은 제주도민의 선택에 감사를 전하며 도민 이익 최우선을 위해 제주의 목소리를 내는 의정활동으로 제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와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는 공동으로 11일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특별 대담을 진행, 앞으로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들었다. >> 관련기사 2면 당선인들은 입을 모아 제주도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국회 입성 이후 제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성곤 당선인은 “상임위원회의 경우 제주 농업 관련 농해수위, 4·3 해결을 위한 행안위, 제주 제2공항

관련 국토위 등 세 명이 함께 의논해 참여하겠다”고 했고, 김한규 당선인은 “어디든 제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 현안들을 풀 국회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 문대림 당선인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 함께 노력해 2026년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김한규 당선인은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등 ‘섬에 사는 불편함’을 해결

하겠다”고 했고, 위성곤 당선인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한 제주 의료체계 개선과 농업을 위한 제주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금리 완화를 통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당선인들은 제주 가치에 기반한 도민 성장 시대, 도민 곁에서 해답 찾기, 도민의 목소리 정부 정책 반영 등 ‘도민’을 키워드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문대림 62.88%-김한규 64.64%-위성곤 54.00% 득표

아라동을 보낼 양영수 42.25%

제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3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하면서 민주당 계열의 6연승 불패신화를 써내려 갔다.

1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도 내 투표

소 230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 이번 선거의 최종 집계 결과, 제주시 갑 선거구 문대림 당선인은 7만 8776표 (62.88%)를 획득, 상대인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의 4만 6503표 (37.11%)를 3만 2273표 (25.77%p) 차이로 제압하며 국회 입성을 예약했다. >> 관련기사 3면

제주시를 선거구 김한규 당선인

은 7만 8774표 (64.64%)를 얻어 2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3만 8948표 (31.96%)를 3만 9826표 (32.68%p) 차이로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4139표 (3.39%)를 받았다.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은 5만 3831표 (54.00%)를 획득했다. 이로써 상대인 국민의힘 고기철 후

보의 4만 5841표 (45.99%)를 7990표 (8.01%p) 차이로 누르며 3선에 성공했다.

한편 제주시 아라동을 제주도의 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 양영수 당선인이 3570표 (42.25%)를 얻으며 도의회에 입성한다. 경쟁구도에 섰던 2위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는 2663표 (31.52%), 3위 무소속 강민속 후보 1344표 (15.90%), 4위 무소속 임기숙 후보는 871표 (10.31%)를 각각 획득했다. 백금탁기자

## 4·10 총선과 제주 현안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 당선인 모두 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포괄적 권한 이양 등  
국회 처리에 합심 밝혀  
개정안 내년 대표발의도  
“기초단체장 권한 강화”

찬반 의견 역시 다소 엇갈렸다.  
제주시갑 선거구 문대림 당선인은 포괄적 권한이양을 반영한 제주 특별법 개정은 단계적·부분적·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 대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제주사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활약상이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본격 출범하면서 기존의 4개 시·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됐고, 행정시 자격으로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 18년간 도민들의 체감도는 도지사 권한만 커졌을 뿐 특별자치도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규모는 줄고 행정체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 불편은 여전했다. 역대 도정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2026년까지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동 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곳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속 의과정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주민투표에 대한

제주시를 선거구 김한규 당선인도 포괄적 권한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 과정부터 국회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도 18년 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통폐합이 이뤄진 만큼 법안적격이 있는 서귀포시 자치단체가 2026년 7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오영훈 도정과 뜻을 같이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 특성에 맞는 특별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대표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4·10 총선에 앞서 지난 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과 관련해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사무와 기초사무가 구분된 법적 체계를 살린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오 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건의 권한 이양, 5300여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빛나는 제주의 도약  
2025 APEC 제주개최!

기업하기 좋은·아이키우기 좋은·청년들이 살기 좋은·글로벌 선두주자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민의 축제

#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2024. 4. 19.(금) ~ 4. 21.(일) <3일간> 서귀포시 일원(주경기장 - 강창학종합경기장)

제주 2024 58  
도민의 건강한 미래,  
스포츠와 함께!

**개회식** 4.19.(금) 19:00~ 사전행사: 17:30~ **첨단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와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사전행사(17:30~18:30) 식전행사(18:30~19:00) 공식행사(19:00~20:00) 식후행사(20:00~21:00)

**초청가수**

진성

김희재

은가은

노라조

사우스카니발

정주형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서귀포시,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장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장애인경기단체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